

本町店 大阪市東区船場中央4丁目1番地
船場センタービル8号館2F281号
電話 大阪(06)251-5444番
自 宅 大阪市東成区東小橋3-4-12
電 話 大阪(06)981-2980番
974-7715番

人事문제등을 決定

西成教会서 總會任職員會 열어

總會第三回任職員會가 지난 4月28日 西成教会에서 열렸다. 금번 任職員會에는 宣敎協議次 米日한 카나다長老敎會 海外宣敎部總務 로버트牧師,

總會第三回任職員會가 지난 4月28日 西成教会에서 열렸다. 금번 任職員會에는 宣敎協議次 米日한 카나다長老敎會 海外宣敎部總務 로버트牧師,



총회 제3회 임직원회

大阪婦人會創立50周年記念集會에 講師로 온 金玉吉製大總長, WCC 伝道部이사단 幹事 朴相賢氏 등의 인사를 받게 되었다. 금번 任職員會에서 決議된 重要案件은 다음과 같다.

① 카나다長老敎會에서 青年宣敎師 派遣하고 있다는 件은 받기로. ② 興業-全協總務를 WSC F大會에 파견하기로. ③ 崔忠植牧師를 WCC 주최 住民活動協議會에 파견하기로. ④ R. 후지키시宣敎師의 韓國語를 하기와하여 渡韓함을 하기로.

婦人委員 權仁淑, 崔昌, 在日外國人의人權委員 華 崔京植, 都市産業伝道委員 姜榮一, 國際協力委員 李仁夏, 財務委員 金漢弼

横浜教会서 研修會

關東地方婦人會連合會

關東地方婦人會連合會에서는 젊은 會員을 中心으로 研修會를 지난5月3日, 横浜教会에서 가졌다.

금번 研修會에는 會員약 30명이 참가하였으며, 강사는 최경식 목사였다.

中部地方青年 信仰講座開

中部地方連合青年會信仰講座가 지난5月3日, 名古屋教会において, 18名가參加して行われた.

今年1月に行われた指導研に中部地方青年會からは3人の青年が出席した. その「國籍と人權」に大変興味を持ち、皆で学んでみよう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月に一度聖研と

總會開き役員改選

中部地方連合青年會

去る4月25日、一九七六年中部地方連合青年會總會が開かれた. 總括 現在の激しく流動する社會の中で、私たちの周囲の社會の移

建物買入契約 단계에

“自立基金”으로 月25万円收入

第30回定期總會에서 宣敎自立基金을 세울것을 決議한후 교역자・長老의 힘으로 2千萬円募金을 目標로 積極推進中에 있으나 이에 앞서는

物件이 있어 契約를 맺을 단계에 이르고 있다. 宣敎70週年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총회는 如前히 海外敎會에 依存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카나다長老敎會의 海外總務 로버트牧師의 지적과 같이 10年前이나 오늘날이나 명목만 다를 뿐 선교원조에는 다름이

없는것이 現實情이다. 이와같은 자세에서 벗어나 信仰의 基本자세를 지금에 사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確立하고자 하는것이 宣敎自立基金이다. 約2千萬円の 資金으로 다음과 같은 建物을 사서 그利息으로 總會財政에 뒷받침을 하고자 한다.

①所在地・名古屋市中村區船入町二丁目(名古屋駅에서 徒歩約10分)
②建物・빌딩3層
③内訳과 收入
(1)一層(建坪56・35㎡)
a 喫茶店(5万円)
b 寿司店(4万円)
(2)二層(建坪58・29㎡)
a 麻雀(6万円)
(3)三層(建坪66・32㎡)
a 마이션4DK(6万円)
(4)駐車場(4万円)
(5)現在 收入合計 二十五万円(5月1日現在)
이 建物을 1千7百萬元에서 사(5月初旬에 修理完了, 修理費는 別途로 支払하게됨) 每月25萬円の 固定收入을 보게 된다.
現在 募金된 金額은 5百55萬円이다.

특히 宣敎自立基金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교역자・長老들이 있으나 그들에게 충분히 理解할수있는 說明을 하기로 하는 한편, 敎會교역자들이 너무나 적은 金額을 약속하고 있음에대하

여 再考하여 自立基金 2千萬円을 達成시킬것을 다짐하고 있다. 神學生, 指導者 양성을위한 세례교인 一人당 年1千円씩 募金할件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これからの中部地方青年會はその主体性のある独自のカラーをもつて活動して行く方針です. 青年會活動内容としては聖研と共に「國籍と人權」等による学習會を昨年に引き続き行つてゆくつもりです. われわれの主体性をもつて他の地方と連帯してゆくつもりです.



買入계약 단계에 이른 건물

推進委設置키로

自立基金위해, 財政局會서

總會第三回財政局會가 지난 4月27日, 西成教会에서 열렸다. 財政局員이多數 결석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하였으

나 우리 총회가 財政的으로 危機에 처해있는 실정에서보 인 局員들은 責任의 重大함을 再 인식하면서 여러가지문 제를 다루었다.



총회 제3회 재정국회

新役員
會長 孫東輝(岐阜)
副會長 李昌成(名古屋)
書記 金錦喜(岐阜)
會計 金錦順(岐阜)
企画部長 鄭邦明(名古屋)
編集部長 金永泰(名古屋)

不動産業務全般

免許番号・愛知県知事①第5426番

太栄企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金 光 洙

事務所 名古屋市熱田区八千代通3丁目11番地
(名古屋市中央卸売市場入口南側太栄ビル)
電話 052(682)1177(代)
自宅 名古屋市千種区猪高町猪子石原字太田
電話 052(771)5952

ドライ専門

豊川クリーニング商会

代表者 完 山 禎
(崔 永 峻)

大阪市淀川区本庄中通3-36
電話 06(372)5755

三菱電機ストア

ヨブヤ電気武庫之荘店

代表者 李 清 孝

尼崎市南武庫ノ荘一丁目6-13
電話 06-436-8622
(スーパーマイショップ前)
宝塚店 宝塚市川面五丁目12-10
電話 0797-86-0305
(スーパーダイエー前)

어머니를 그린다

잠언 23장 25절

金 炯 卓



설교

어머니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다.

나만의 사랑을 담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일 것이다. 아낌없이 인생을 희생해 삶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그 거룩한 사랑, 그 저편서도 기억되고 있지 않은 그 사랑, 어머니란 말만 들어도 마음속에 울림을 주는 그 사랑, 어머니를 그리게 하는 그 사랑...
그러기에 아가 세상에 나서 세일 먼저 배우는 말은 어느 민족의 경우에도 다같이 엄마(마)라는 말이다. 또한 사랑의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도 물론 일정한 것은 있지만 대개 어머니를 부른다.
사울에서 군인이 전사할 때 거의 모든 군인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부른다. 혹은 사람이 잠복하다가 통이 싹트면 나오는 소리는 아이구머니이다.
왜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어머니를 부를까?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포대기에 쌓여 어머니의 젖을 빨고 기저귀 바지 받으며 고이 고이 길러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부터 아버지를 노래하는 것보다 어머니를 찬양하는 노래가 더 많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소재로 작품을 썼으며 얼마나 많은 화가들이 어머니를 그렸으며, 얼마나 많은 음악가들이 어머니를 노래했는가.
사울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러기에 아버지를 염원하는 어머니를 부르지는 않는다. 어머니를 사랑해서 어머니를 부르지는 않는다. 어머니를 사랑해서 어머니를 부르지는 않는다. 어머니를 사랑해서 어머니를 부르지는 않는다.
20년, 그러나 세월은 흘러가도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하다. 지금도 바람결에 은은하게 들려오는 것만 같다. 어머니가 걸어 간다는 그들을 그것은 확실히 슬픔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다.
어머니에 생애는 어머니의 사랑의 사랑을 소개하고 글을 맺는다.
사울 불꽃이 피어 있어 제비도 남을 아주 잊어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꿈에도 거기 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꽃보다 고운 저녁노을이 여름 서늘한 바람에 피어오르는 그런 황금이 쌓인 평화로운 마을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人權問題”に闘志燃やす

KCCの李清一幹事



私たちの在日大韓基督教會にあって、長身で長髪の働き手といえ、この人李清一氏である。清一氏は、一九四十年生れで当年とて三十五才という若さ(?)で、現在KCCの幹事として活躍中である。
氏は、一九六九年に韓国に渡り、延世大學で神學を學ばれ、その一年半後には與壽恵氏と結婚された後、再び同伴で渡韓され勉學を続けられたという學問好きである。運動家としての珍らしくインテリであるとの評判を得ているのである。一度李清一氏宅を訪れた方は、必ずやその書籍の質量共に豊富なことに驚嘆するであろう。(た

とえすべて読んでいなくても)氏は、また大の字はのうである。今、與壽恵氏との間に一男一女の子宝に恵まれているが、子供の口からは、ママと言葉より、アッと言葉の方を良く耳にするらしいである。もともとは毎日始末に、子供とゆつくり過ごす時間が無いと言ったのも原因だと言ったが、それにもやがては子供はのうには違いないのである。
さて氏は、KCCが中心になつて進めている在日韓国人の人權獲得闘争をそれこそ果敢に担っている。氏は、常に闘志を燃やしている。氏に、常に関心をもち、どんなに小さな差別発言に対しても、大きな体を震わせ、だれかれとなく容赦のない糾弾の声をあげる。氏の不正義を許さない怒りの声と、しばしば見せるその問題指摘に、在日韓国人のバイタリティーを感じ

完全한人格을 가질權利

基督教어린이宣言文

五月は、佳節인일이 많은 달이다. 休일이 계속되어 가족서비스를 하는 데 고생이다. 반면에 어린이들은 어느때보다 즐거운 때이다.
어린이를 맞이하여 다만 어린이들을 즐기는 대로만 생애를 지내면 안된다. 어린이는 완전한 인격을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다.
1. 어린이는 완전한 인격을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어린이는 배움 권리가 있다.
3. 어린이는 養育받을 권리가 있다.
4. 어린이는 保護받을 권리가 있다.
5. 어린이는 平和를 누릴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말과 행동과 생활 전반에 있어서 어른과 동일한 人權上의 保障을 받아야 한다.
우리 주 예수께서 어린이를 우리 천국을 상속하시고 어린이를 사랑하셨고 어린이를 기쁘게 하신다.
우리 주 예수께서 어린이를 우리 천국을 상속하시고 어린이를 기쁘게 하신다.
우리 주 예수께서 어린이를 우리 천국을 상속하시고 어린이를 기쁘게 하신다.

連日150名が参席

大阪教会婦人会50周年集會

大阪教会婦人会創立50周年記念集會 28日(土) 5月22日(土) 梨花特別大講演會が 28日(土) 5月22日(土) 梨花特別大講演會が



大阪教会婦人会創立50周年記念集會の 光景

李大京牧師 基長に加入

李大京牧師(西新井教會)は、4月20日、韓国基督教長老會全北長老會に加入하였다。李大京牧師は、一九七四年第30回定期總會에서 牧師任수를 받고 西新井教會에서 奉職中에 있으나、금번 基督教長老會에 加入함으로써 基督教長老會와 우리 총회와의 두터운 파이프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食品・薬品包装業

加富利産業

代表者 金 漢 弼

東京都足立区西新井本町4-25-12 電話 03(890)0951番代

尾頭センター株式会社

代表取締役 姜 南 中

名古屋市中川区尾頭橋通2-16 電話 (052) 331-1222~3番 自宅 大阪市東成区東今里2-2-8 電話 (06) 976-4937番

東和食品株式会社

代表取締役 李 東 和

東京都江東区永代2-11-3

